

TV속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정보의 모니터 사례 분석

류혜숙·김현숙¹·양일선*·김기태**·배미용***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대한영양사협회***

The monitoring Case Analysis of Nutrition-related Programs Presented
on Television Broadcast Media

Ryu, Hea Sook · Kim, Hyun Sook¹ · Yang, Il-Sun* · Kim, Ki Tai** · Bae, Mi Yong***

Dep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Yonsei University**

*Dept. of Communication Honam University***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topics presented throughout the television broadcast media, thereby suggest the optimal communication method to give right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To perform this study, total sixteen monitoring people were recruited and trained through monitoring practice before and during the study. Five domestic TV channels were selected to be monitored, for six months. For the best efficiency, all the monitoring people were divided into 8 teams based on the regional consider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was completed using SAS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reporting cases of information about foods and nutrition were 237, among which about 30% was classified as appropriate and 70% as inappropriate based on the trained monitors' evaluation.

접수일 : 2003년 3월 17일, 채택일 : 2003년 4월 6일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 Soo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h-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Tel : 02) 710- 9469, Fax : 707-0195, E-mail : hskim@sookmyung.ac.kr

Second, the analysis of contents about incorrect informations showed that the insufficient descriptions of terminology and contents were the highest. And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s, incorrect contents excessively entertainment-oriented, no provision of alternatives, improper selection of expert advisors were follow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stematical monitoring should be continu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incorrect communication thereby give the right information in food and nutrition area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re should be a closely cooperated system to provide the professional information to broadcasting production team by establishing the strategic program. In order to do that, most importantly the advisory team should be organized to professionally connect mass media to corresponding specialists. In addition, more educational programs about food and nutrition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monitoring, television broadcast media, incorrect information, food and nutrition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에 관한 논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다.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폭넓게 전해들을 수 없을 만큼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영양정보의 경우도 예외 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³⁾.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쇄매체를 통한 식품정보를 이용해 식품을 선택한다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양정보의 급원으로 TV, 라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⁵⁾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반 대중의 70% 이상이 TV와 신문을 가장 많이 접하는 식품관련 정보원으로 꼽았으며 이들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50~60%로 높았다⁶⁾. TV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건강관련정보가 전달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효과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TV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의 전파력은 크지만 과장된 식품광고, 왜곡된 영양지식, 무절제한 정보의 범람 등 정확성과 전문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⁷⁾. 이처럼 TV의 강력한 정보 전달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TV는

영상과 음향을 함께 전달하고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TV와 공존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되는 정보를 그대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게 한다⁸⁾. 따라서 TV를 통해 전파되는 영양관련 정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매스미디어보다 지대하다.

최근 들어 건강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TV를 통해 전달되는 식품영양관련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주된 원인의 하나는 영양관련 전공자와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인식과 협조 부재에 있다. TV프로그램 담당 프로그램 디렉터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⁹⁾ 대부분의 프로그램 디렉터들은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장기적 목적은 이해하고 있으나, 식품영양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실제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볼 때 식품영양학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작 시스템의 비전문성은 무엇보다도 부정확한 보도의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고¹⁰⁾, 제작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은 주로 TV 방송국에 전문기자 또는 전문 제작자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¹¹⁾.

더구나 최근 들어 과거의 정보프로그램나 요리프로그램에서 전달되던 식품영양관련 정보가 드라마나 대담프

로그랩, 코미디물 등의 오락프로그램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어¹⁴⁾ 이처럼 여과 없이 전달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¹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국민건강 관련정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식품영양 모니터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정확하게 보도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취재와 편집에서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정확한 보도 형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TV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식품영양정보는 어느 영역에서, 어떤 주제와 유형으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영역과 유형 사례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및 기간

1) 채널선정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 대상으로 5개의 TV방송사 즉 KBS1, KBS2, MBC, SBS, CABLE을 선정하였으며, 5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건강 관련 정보 중에서 식생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모니터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모니터기간)은 1999년 3월 1일에서 1999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방송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모니터 팀 구성

수도권 5팀(서울, 경기), 중부권 1팀, 영남권 1팀(부산, 호남권 1팀(광주) 총 8개팀으로 팀별 2명의 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되었고 모니터요원은 식품영양학을 전공중인 4학년학생, 석·박사과정, 현직영양사, 식품영양학관련 실무경력자로 구성되었다.

3) 모니터 요원 교육

모니터 요원의 교육은 모니터 실시 전 한달 동안 예비 모니터 실시를 통한 훈련 기간을 거쳐 모니터가 시행되는 전 기간에는 월 1회 팀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4월과 7월 두 차례의 중간 평가를 위한 훈련 워크숍을 실시하여 모니터 방법¹⁶⁾에 의거하여 교육을 강화 시켰다(표 1).

표 1. TV 프로그램(화면) 모니터과정 및 처리 단계표

단 계	방 법
화면관찰 단계 (1차 모니터)	자세히볼 것(빠지지않게) 정확히 볼 것(틀리지않게) 상세히볼 것(세밀하게)
화면분석 단계 (2차 모니터)	특성, 경향, 성격을 찾아 낼 것 1차모니터 동시작업
화면평가 단계 (3차 모니터)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 주체적인 관심에 비추어줄 것 비판적으로 읽을 것 방향성을 가질 것
제언 및 개선방안제시 단계 (4차 모니터)	프로그램 내용 차원(format, content) 제작과정 지원(PD, system) 방송사 구조 차원(정책적 배려) 사회 구조 차원(심의, 시청률 등)
토론 단계	전문분야 교수님 강의 경청 정확한 표현, 정리 능력 팀원간 토의
보고서 단계	토론 내용 정리 모니터 유목표정리 종합 정리 확정 보고서

2. 내용 주제별 분류

TV에서 보도되는 식품영양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¹⁶⁾. 식품은 식품과 영양소, 모든 식재료, 식품위생법, 식품의 효능 등을 주제로 한 것, 음식과 요리¹⁷⁾는 음식과 요리전반을 주제로 한 것, 식생활은 식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나 식문화, 식습관 형성과 관련된 식사예절 등을 주제로 한 것, 질병 및 식사요법은 특정식품과 질병과의 관련성, 식이요법, 건강 전반에 대한 주제로 한 것, 비만 및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한 식생활정보¹²⁾으로 분류하였다(표 2).

표 2 모니터 내용의 주제별 분류

주제별	내 용
식품	식품과 영양, 영양소, 식재료, 식품위생법, 식품의 효능, 음식과 요리
음식과 요리	음식, 요리전반
식생활	식문화, 식습관, 식사예절, 식생활전반
질병 및 식이요법	특정식품과 질병과의 관련성, 식이요법, 건강전반
비만 및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효과, 비만치료

3.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프로그램이란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로써 그 내용을 기호화해서 수록한 하나의 작품이다²⁹⁾. 따라서 프로그램은 보도, 오락, 교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 낸다³⁰⁾. 유네스코 분류 형식에 따르면 정규 일일뉴스,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다큐, 시사 등 정보프로그램, 시리즈물 등을 포함해 12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 대상을 각 테마별로, 정보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요리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드라마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내용의 평가유형별 분류

TV 속에서 나타난 식품영양 관련 정보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 유무를 정하여 모니터 하였다(표 3).

표 3 모니터 내용의 평가 유무

분석유무
1. 주제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가?
2. 내용의 전달이 명확한가?
3. 전문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가?
4. 내용이 과장되지 않았는가?
5.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을 주고 있는가?
6. 비교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여 비교 하였는가?
7. 식품위생 관련법에 위반된 내용은 아닌가?
8. 관련 전문가 선정이 적절한가?
9.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는가?
10. 특정식품에 대한 간접 광고 효과는 없는가?
11. 동물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동일 적용하여 보도하진 않는가?
12. 긍정적인 부분은 어떠한가?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 된 내용의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채널별, 월별, 프로그램 종류별, 주제별 차이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의 산출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니터링 기준에 따른 보도내용의 평가유형별 분석

모니터 된 내용의 유형별 분석에서 총 237건의 사례 중 시청자들에게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긍정적인 사례가 70건으로 전체의 29.5%로 나타났고,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167건으로 70.5% 이었다(표 4).

1) 긍정적 사례의 유형별 분석

긍정적으로 평가된 보도 내용의 빈도를 보면,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평가된 사례가 31건(13.0%)으로 가장 많았고, '상세한 설명, 정리, 자막처리' 등 구성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내용이 26(11.0%)건, '위생 및 질병에 관한 경각심을 유발시켜 주었다'가 13(5.5%)건 순으로 전체 모니터 건수의 29.5%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한 영양사회에서 보고된 긍정적인 사례 4.5%³⁰⁾와 비교하면 증가한 경향을 보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TV를 통한 식품 영양정보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첫째, 유의한 정보제공의 예로서 흔히 '만두속'으로 알고있는 단어의 정확한 표현이 '만두소'임을 알려준 사례, '좋은 식품 선택법', '식문화 소개', '요리이름의 상세한 설명', '과학적이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법 소개', '음식물의 냉장 보관시의 적정기간 제시', '빵에 대한 유의한 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상세한 설명, 정리, 반목, 자막 등으로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구성상 긍정적 평가의 경우로 조리법의 자세

표 4 모니터 기준에 따른 보도내용의 유형별 사례분석

구분	평가유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부정적 사례	1. 과학적 근거 불충분	4(1.7)	8(3.4)	2(0.8)	8(3.4)	4(1.7)	0(0.0)	26(10.9)
	2. 잘못된 내용전달	5(2.1)	3(1.3)	2(0.8)	4(1.7)	6(2.5)	2(0.8)	22(9.3)
	3. 용어 및 내용 설명 미흡	5(2.1)	7(3.0)	7(3.0)	6(2.5)	9(3.8)	6(2.5)	40(16.9)
	4. 지나친 오락적 묘사	5(2.1)	8(3.4)	5(2.1)	4(1.7)	0(0.0)	0(0.0)	22(9.3)
	5.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4(1.7)	4(1.7)	1(0.4)	3(1.3)	3(1.3)	1(0.4)	16(6.7)
	6. 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과장	1(0.4)	0(0.0)	1(0.4)	1(0.4)	1(0.4)	0(0.0)	4(1.7)
	7. 전문가 섭외의 부적절 사례	1(0.4)	2(0.8)	0(0.0)	2(0.8)	3(1.3)	0(0.0)	8(3.4)
	8. 연사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	0(0.0)	1(0.4)	0(0.0)	2(0.8)	3(1.3)	1(0.4)	7(3.0)
	9.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0(0.0)	0(0.0)	0(0.0)	1(0.0)	0(0.0)	0(0.0)	1(0.4)
	10. 식품위생법 관련 제도의 위반	0(0.0)	0(0.0)	0(0.0)	0(0.0)	0(0.0)	1(0.4)	1(0.4)
	11. 특정식품 및 업체의 간접광고	1(0.4)	1(0.4)	0(0.0)	0(0.0)	2(0.8)	0(0.0)	4(1.7)
	12. 식품영양, 영양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	0(0.0)	0(0.0)	0(0.0)	1(0.4)	0(0.0)	0(0.0)	1(0.4)
	13. 구성상의 문제	0(0.0)	0(0.0)	0(0.0)	2(0.8)	2(0.8)	3(1.3)	7(3.0)
	14. 기타	0(0.0)	1(0.4)	1(0.4)	2(0.8)	3(1.3)	1(0.4)	8(3.4)
소 계		26(11.0)	35(14.8)	19(8.1)	36(15.1)	36(15.2)	15(6.3)	167(70.5)
긍정적 사례	15. 구성면(설명, 자막, 정리)의 우수성	1(0.4)	4(1.7)	5(2.1)	4(1.7)	9(3.8)	3(1.3)	26(11.0)
	16. 위생, 질병 등에 관해 경각심 유발	1(0.4)	2(0.8)	1(0.4)	4(1.7)	4(1.7)	1(0.4)	13(5.5)
	17. 유익한 정보 제공	4(1.7)	3(1.3)	6(2.5)	4(1.7)	10(4.2)	4(1.7)	31(13.0)
소 계		6(2.5)	9(3.8)	12(5.0)	12(5.1)	23(9.7)	8(3.4)	70(29.5)
총 계		32(13.5)	44(18.6)	31(13.1)	48(20.2)	59(24.9)	23(9.7)	237(100)

한 제시나, 상세한 자막처리,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저널명 인용, 영양사가 출연하여 '강냉이 다이어트'에 대한 칼로리 계산을 쉽게 설명해주는 등 여러 가지 민간 요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예 등이다.

셋째, 위생이나 질병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주의와 예방법을 알려주고, 유통기간에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 지적, 요즘 아동들의 식생활 문제점 언급, 소아비만에 대한 심각성 등을 알려 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방송매체는 교육적인 기능, 다양한 정보 제공, 식품영양 정보의 창구로서의 중요한 정 기능적 역할²⁰⁾을 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 부정적 사례의 유형별 분석

부정적 사례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보면 '용어 및 내용설명 미흡'이 40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인쇄매체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²¹⁾. 다음으로 '과학적 근거불충분사례' 26건, '잘못

된 내용전달'이 22건, '지나치게오락적이다'가 22건, '실생활에 구체적 대안제시미흡'이 16건, '전문가 섭외의 부적절' 8건, '관련 연사로 출연한 전문가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 7건, '구성상의 문제'가 7건, '식품의 효능 등에 관한 과장'이 4건, '특정식품 및 업체의 간접광고' 4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적용' 1건,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1건, '영양사, 식품영양에 대한 이미지 실추사례'가 1건, 기타 순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정원 등의 연구에서 '잘못된 내용전달' 내용설명의 미흡' 과장된 사례' 순으로 보고된 것과 다소 다르게 나타나 대조를 보이며²²⁾이들 연구에서 분류되지 않은 '지나치게 오락적이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요리 프로그램의 경향이 오락화 되어 가는 것²³⁾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정확한 보도 유형을 내용별로 보면 첫째, 용어 및 내용설명이 부족한 사례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등의 설명이 미흡하고, 요리프로그램에서 재료의 양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적당히'로 소개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용어들이 실생활과 거리감이 있을 경우²⁴⁾ 또한 특정 식품이 어디에 좋다고만 하고 '왜 좋은지', '어떤

경우에 좋은지' 설명이 없어 궁금증만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로 변비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식습관'을 원인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식습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검증없이 방송되는 예이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식사요법이나 자연식 소개, 개인의 체험을 사례로 한 다이어트식단²⁰, 식품의 효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보도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검증의 부족²¹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사례로 영양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효능으로 만든 국수를 영양식으로 소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잘못된 내용전달의 예로서 '짜장면과 불고기는 같은 열량을 갖는다'는 등 식품의 영양성분 비교시 비교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와 '냉장고속에서 음식을 보관하면 미생물이 사멸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오류를 보였다.

넷째, 오락적으로 보도되어 잘못된 식습관 등의 영향을 주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우로 음식이나 요리시연 등을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한 예들이다. 오락프로에 요리코너가 포함될 경우 요리 본질보다 인기, 유행, 흥미성 위주로 변질되어 요리과정의 위생 등은 간과될 수 있다²². 구체적인 사례로 음식 빨리 먹기 대회, 음식을 던지며 장난하는 장면, 요리 시연 중에 조리기구로 게임 하는 등의 내용들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 경우로서 이는 예년의 연구 자료와 비교해 감소하였다²³. 이 사례는 주로 질병과 관련한 식사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생활의 응용 방법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의 위생 실태에 대한 보도 등, 보도는 있으나 예방법이나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여섯째, 전문가 섭외의 부적절 사례이다. 이정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361회의 식품영양 및 건강관련 방송 내용 중 12.5%에 상당하는 방송횟수에서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방송내용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의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⁴. 실제 본 연구에서도 8건의 지적 사례중 식생활관련 내용의 방송에 요리 연구가가 출연한 것이 1건, 의사출연이 4건, 한의사 출연

이 2건, 연예인 출연이 1건으로 나타났다. 모니터 된 사례 중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보관법에 대한 내용을 의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속에 음식을 보관하면 균이 사멸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전문가 출연의 경우 식생활, 영양에 관한 지식이 낮아 논제의 초점이 빗나가거나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하거나 어렵게 설명할 수 있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²⁵.

일곱번째, 구성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로 주제에 어긋난 산만한 구성, 잘못된 자막처리, 질문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 등이다. 잘못된 자막처리의 한예로 벨기에산 달걀에만 문제가 있었음에도 타이틀을 '달걀도 발암물질'이라고 처리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모든 국내산 달걀에도 발암 물질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소지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

여덟번째, 식품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과장된 사례로서 예를 들면 '연근즙 한잔이 보약과 맞먹는', '비타민C는 만병 통치약이다'와 같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균형성을 잃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의 과장은 특히 별미기행이나 요리프로그램에서 식품의 효능을 주제로 할 때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일반인들의 식생활을 전제로 하여 식품이나 음식의 효능이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 제작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²⁶.

아홉번째, 관련전문가로 출연한 연사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로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 연사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거나 함께 출연한 전문가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방송중에 논쟁을 하는 모습이 지적된 경우로서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열번째, 특정 식품 및 업소의 간접 광고 사례로서 프로그램의 특정 코너에서 음식점의 약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특정 식재료 상표를 지칭하거나 프로그램중에 협찬사에 대한 자막이 너무 많이 나오는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 적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이다. 쥐실험을 통한 결과를 마치 임상실험을 거친 것처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예로서 잘못 보

도하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물로 희석하여 초산으로 한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빙초산을 식품에 쏟아 부어 사용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소개되는 등 법규 이해 미비로 인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실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 이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전문성 검토가 미비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이다⁷⁾. 또한 영양사, 식품영양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예로 당뇨병 치료 설명에서 약물치료 못지 않게 중요한 식이요법을 간과한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타의 예로서, 진행자의 맛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조리과학을 간과하고 손맛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 주제를 벗어난 산만한 방송과 같은 편집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2. 부정확한 식품영양정보 보도내용의 테마별 경향

1)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채널별 경향

채널별 부정확한 보도내용의 유형은 (표 5)와 같다($\chi^2 = 112.94$, $df=64$, $P=0.001$). KBS1은 과학적 근거불충분 8건과 용어 및 내용설명 부족 8건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

표 5 모니터 결과에 따른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채널별 모니터 건수

채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계
KBS1	8	3	8	0	3	0	2	1	0	1	0	0	2	0	28
KBS2	5	5	4	4	1	1	1	1	1	0	0	0	0	1	24
MBC	3	6	7	4	7	1	2	0	0	0	2	0	1	0	33
SBS	5	5	6	13	3	1	0	1	0	0	0	0	0	3	37
CABLE	5	3	15	1	2	1	3	4	0	0	2	1	4	4	45
총건수	26	22	40	22	16	4	8	7	1	1	4	1	7	8	167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chi^2 = 112.94$, $df=64$, $P=0.001$

- 1)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
- 2) 잘못된 내용전달의 사례
- 3) 용어 및 내용설명의 미흡
- 4)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한 사례
- 5)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 사례
- 6) 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과장된 사례
- 7) 전문가 섭외가 부적절한 사례
- 8) 전문가로 출연한 연사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
- 9)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
- 10) 식품위생법 관련제도의 위반 사례
- 11) 특정식품 및 업소의 간접광고
- 12) 식품영양, 영양사 등에 대한 이미지 실추
- 13) 구성상의 문제
- 14) 기타

고, KBS2는 잘못된 내용전달 5건과 과학적 근거 불충분 5건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은 관련전문가의 조언이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발생된다⁸⁾. MBC는 구체적 대안제시 미흡 7건과 용어 및 내용설명 미흡 7건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SBS의 경우 식품영양 정보의 지나친 오락적 묘사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CABLE에서는 용어 및 내용설명의 미흡이 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프로그램 영역별 경향

건강, 요리 등에 관한 정보가 전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드라마, 정보프로그램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⁹⁾.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영역별 경향을 부정확성 위주로 분석한 결과(표 6)($\chi^2=163.06$, $df=64$, $P=0.001$), 정보프로그램에서는 용어 및 내용 설명의 미흡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뉴스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 미흡이 8건으로 가장 높게 지적되어 '최근의 방송뉴스가 원인이나 대안제시는 없고 결과 위주다'¹⁰⁾는 보고

표 6 모니터 결과에 따른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프로그램 영역별 모니터 건수

프로그램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계
정보프로그램	13	9	16	5	3	3	4	3	0	1	1	1	3	3	65
뉴스프로그램	2	2	5	0	8	1	1	1	0	0	0	0	1	0	21
오락프로그램	6	5	2	7	1	0	3	0	1	0	2	0	0	1	28
드라마	0	2	0	5	0	0	0	0	0	0	0	0	0	0	7
요리프로그램	5	4	17	5	4	0	0	3	0	0	1	0	3	4	46
총건수	26	22	40	22	16	4	8	7	1	1	4	1	7	8	167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chi^2 = 163.06$, $df=64$, $P=0.001$

- 1)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
- 2) 잘못된 내용전달의 사례
- 3) 용어 및 내용설명의 미흡
- 4)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한 사례
- 5)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 사례
- 6) 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과장된 사례
- 7) 전문가 섭외가 부적절한 사례
- 8) 전문가로 출연한 연사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
- 9)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
- 10) 식품위생법 관련제도의 위반 사례
- 11) 특정식품 및 업소의 간접광고
- 12) 식품영양, 영양사 등에 대한 이미지 실추
- 13) 구성상의 문제
- 14) 기타

가 이를 뒷받침한다.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지나친 오락적인 묘사가 7건으로 높게 지적되어 영양이나 건강 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을 유행, 인기, 흥미위주로 다룸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⁷⁾. 드라마의 경우에서도 식생활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된다는 지적이 5건으로 가장 높아, 이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23, 28)} 요리프로그램에서는 용어 및 내용의 설명 미흡이 17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들어 요리프로그램에서까지 흥미나 유행 위주로 구성되고 있어¹⁵⁾ 이는 내용의 강조보다는 인기 위주로 다루어져 정보의 핵심에 대한 문제가 흐려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⁷⁾.

3)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주제별 경향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주제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chi^2=168.92$, $df=64$, $P=0.001$). 이를 부정확성 위주로 살펴보면 식품을 주제로 다루는 보도에서 과학적 근거불충분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요리의 경

표 7. 모니터 결과에 따른 부정확한 보도 유형의 주제별 모니터 건수

주제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계
식품	12	9	10	0	5	2	2	4	1	1	1	0	2	1	50
음식과 요리	10	3	19	6	3	0	0	2	0	0	3	0	3	7	56
식생활(식습관)	0	1	3	16	4	0	1	0	0	0	0	0	0	0	25
결명 및 식재료	3	5	6	0	4	2	4	1	0	0	0	1	2	0	28
비만 및 다이어트	1	4	2	0	0	0	1	0	0	0	0	0	0	0	8
총건수	26	22	40	22	16	4	8	7	1	1	4	1	7	8	167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chi^2 = 168.92$, $df = 64$, $P = 0.001$

- 1)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
- 2) 잘못된 내용전달의 사례
- 3) 용어 및 내용설명의 미흡
- 4)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한 사례
- 5)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 사례
- 6) 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과장된 사례
- 7) 전문가 섭외가 부적절한 사례
- 8) 전문가로 출연한 연사의 실수나 전문성 부족
- 9)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
- 10) 식품위생법 관련제도의 위반 사례
- 11) 특정식품 및 업체의 간접광고
- 12) 식품영양, 영양사 등에 대한 이미지 실추
- 13) 구성상의 문제
- 14) 기타

우 용어 및 내용설명 미흡이 19건으로 높았으며, 식생활(식습관)을 주제로 다루어진 내용에서는 지나친 오락적 묘사의 건수가 16건으로 가장 많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관련 프로그램 내용의 오락적인 표현은^{15, 16)}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병을 주제로한 보도에서는 용어 및 내용설명 미흡이 6건으로 가장 많아 정확성과 사실성이 중요한 건강관련 정보에서 모호성, 추상성의 문제가 지적된 경우이다¹⁷⁾. 다음으로 비만 및 다이어트 보도의 경우 잘못된 내용전달이 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건강에 심각한 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소홀히 다룬 경우이다. 일반상품은 불량품에 대한 피해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유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⁸⁾.

3. 모니터 결과에 따른 보도 내용의 부정확도

모니터 결과에 따른 보도내용을 월별, 채널별, 프로그램 종류별, 주제별 부정확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alpha=0.05$ 수준에서 chi-square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채널과 프로그램 종류와 오류내용간에 유의성을 보였다.

1) 월별 모니터건수의 부정확성

모니터 결과에 따른 월별 오류 경향은 (표 8)에서와 같이($\chi^2=8.10$, $df=5$, $P=0.151$) 3월은 총 32건 중 긍정적

표 8. 모니터결과에 따른 월별 부정확성 비율 N(%)

월	구 분		계
	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부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3	6(18.7)	
4	9(20.4)	35(79.6)	44(100.0)
5	12(38.7)	19(61.3)	31(100.0)
6	12(25.0)	36(75.0)	48(100.0)
7	23(38.9)	36(61.1)	59(100.0)
8	8(34.8)	15(65.2)	23(100.0)
계	70(29.5)	167(70.5)	237(100.0)

$\chi^2 = 8.10$, $df = 5$, $P = 0.151$

유의적인 차이 없음.

사례 6건, 부정확한 사례 26건, 4월에는 총 44건중 긍정적 사례 9건, 부정확한 사례 35건, 5월은 긍정적 사례 12건, 부정확한 사례 19건, 6월은 총 48건중 긍정적인 사례 12건, 부정확한 사례 36건, 7월은 총 59건중 긍정적사례 23건과 부정확한 사례 36건이었고, 8월의 경우 총 23건중 긍정적 사례 8건과 부정확한 사례 15건으로 모니터 되어 월간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2) 프로그램 영역별 부정확성

프로그램 영역별로 본 오류의 경향은 (표 9)과 같이 유의성을 보였다($\chi^2=20.26, df=4, P=0.001$).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마에서 총 7건의 모니터 내용 중 7건이 부정확한 사례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오락프로그램 총 32건의 모니터 건수 중에서 긍정적 사례가 4건이고 부정확한 사례가 28건, 정보프로그램 총 82건 중 긍정적 사례 17건, 부정확한 사례 65건, 요리프로그램은 총 76건중 긍정적 사례 30건, 부정확한 사례 46건, 뉴스프로그램 총 40건중 긍정적인 사례 19건, 부정확한 사례 21건 순이었다. 드라마의 경우 오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드라마나 코미디물 등의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이미지가 자칫 왜곡되기 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건강 관련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흥미제고라는 차원에서만 다룰때 생겨나는 문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뉴스프로그램에서 부정확한 사례가 가장 적은 것은 식품영양정보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올바르게 다

표 9 모니터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영역별 부정확성 N(%)

프로그램영역	구 분		계
	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부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정보프로그램	17(20.7)	65(79.3)	82(100.0)
뉴스프로그램	19(47.5)	21(52.5)	40(100.0)
오락프로그램	4(12.5)	28(87.5)	32(100.0)
드라마	0(0.00)	7(100.0)	7(100.0)
요리프로그램	30(39.5)	46(60.5)	76(100.0)
계	70(29.5)	167(70.5)	237(100.0)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chi^2=20.26, df=4, P=0.001$

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모니터결과에 따른 채널별 부정확성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채널별 오류도는 (표 10)과 같이 유의성을 보였다($\chi^2=9.43, df=4, P=0.05$). 채널별로 살펴보면 D채널이 총 43건 중 긍정적 사례 6건, 부정확한 사례 37건으로 오류가 가장 높았는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채널에서 오류도가 높은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모니터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 내용을 흥미위주로 다룰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식생활관련 정보를 다룰 경우 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⁶⁾. 그 다음으로 B채널에서는 총 30건 중 긍정적 사례가 6건, 부정확한 사례가 24건, A채널은 총 41건 중 긍정적 사례가 13건, 부정확한 사례가 28건, C채널에서는 총 51건 중 긍정적 사례가 18건, 부정확한 사례가 33건, E채널은 총 72건중 긍정적 사례가 27건, 부정확한 사례가 45건 순으로 요리에

표 10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채널별 부정확성 비율 N(%)

채널별	구 분		계
	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부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A채널	13(31.7)	28(68.3)	41(100.0)
B채널	6(20.0)	24(80.0)	30(100.0)
C채널	18(35.3)	33(64.7)	51(100.0)
D채널	6(14.0)	37(86.0)	43(100.0)
E채널	27(37.5)	45(62.5)	72(100.0)
계	70(29.5)	167(70.5)	237(100.0)

$\chi^2=9.43, df=4, P=0.05$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표 11. 프로그램 영역별로 본 채널별 모니터 건수 N(%)

	구 분					계
	KBS1	KBS2	MBC	SBS	CA-TV	
정보프로그램	29(12.2)	12(5.1)	12(5.1)	18(7.6)	11(4.8)	82(34.8)
뉴스프로그램	12(5.1)	2(0.8)	17(7.1)	8(3.4)	1(0.4)	40(16.8)
오락프로그램	0(0.0)	7(3.0)	10(4.2)	10(4.2)	5(2.1)	32(13.5)
드라마	0(0.0)	0(0.0)	2(0.8)	5(2.1)	0(0.0)	7(2.9)
요리프로그램	0(0.0)	9(3.8)	10(4.2)	2(0.8)	55(23.2)	76(32.0)
계	41(17.3)	30(12.7)	51(21.4)	43(18.1)	72(30.5)	237(100.0)

$\chi^2=9.43, df=4, P=0.05$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E채널에서 비교적 오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4) 보도 내용의 주제별 부정확성

보도 내용의 주제별 부정확성에 대한 경향 (표 12)에 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chi^2=3.79$, $df=4$, $P=0.436$), 식생활을 주제로 다루어진 내용에서 긍정적 사례 6건, 부정확한 사례 25건으로 오류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품을 내용의 주제로 보도한 사례에서 긍정적인 보도는 17건이고 부정확한 사례는 50건이었으며, 질병 및 식사요법은 긍정적 사례 12건, 부정확한 사례 28건, 음식과 요리의 경우 긍정적 사례 30건, 부정확한 사례 56건, 다이어트 및 비만은 긍정적 사례 5건, 부정확한 사례 8건 순이었다.

표 12 모니터 결과에 따른 주제별 부정확성 비율 N(%)

주제별	구 분		계
	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부정확한 정보전달 사례	
식품	17(25.4)	50(74.6)	67(100.0)
음식과 요리	30(34.9)	56(65.1)	86(100.0)
식생활	6(19.3)	25(80.7)	31(100.0)
질병 및 식사요법	12(30.0)	28(70.0)	40(100.0)
비만 및 다이어트	5(38.5)	8(61.5)	13(100.0)
계	70(29.5)	167(70.5)	237(100.0)

$\chi^2=3.79$, $df=4$, $P=0.436$
 유의적인 차이 없음.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송매체에 의한 식품영양정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식품영양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TV 5개 채널을 중심으로 1999년 3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니터된 총 사례건수는 237건으로 그 중 내용의 정확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70건, 반면 부정확하다고 판정된 사례가 167건으로 모니터건수에 따른 식품영양정보의 부정확도는 70.5% 이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첫째 건강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내용만을 보도해야 하며, 둘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식생활 관련 정보를 다룰 경우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오락적인 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올바른 식품영양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제언으로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문 인력의 육성등 제작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의학이나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이미 구성된 것처럼 식품영양 전문 자문단 구성이 이루어짐으로서 이들을 통한 전문지식이 밀거름 역할을 함으로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식품영양관련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사후 감시활동, 즉 모니터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사 내부의 프로그램 디렉터나 방송 작가와의 공조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빠른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영양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매체 개발이 시급히 진행되어져야 하며 올바른 식품영양정보 전달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Medeiros, L., Russell, W., Shipp, R., Nutrition knowledge as influenced by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Nutr. Res.*, 11:979-988, 1991.
2. McArthur, L.H., Chamberlain, V.M., Effectiveness of a college course focused on evaluation of health claims, *J. Am. Coll. Health.*, 41:207-212, 1993.
3. Heaton, A.W., Levy, A.S., information sources of U.S. adults trying to lose weight, *J. Nutr. Educ.*, 27:182-190, 1995.

4. Gorn, G.J., Goldberg, M.E., Behaviorai evidence of the effects of teievised food messages on children, J. Consumer Res., 9:200-205, 1982.
5. McPherters, R., The effectiveness of print advertising, J. Advertising Res., 31:RC5-12, 1991.
6. Burns, A.C., Foxman Edu : Some determination of the use of advertising by married woman, J. Advertising Res., 29:57-63, 1989.
7. You, E.Y., Sung, H.I., Kwak, J.O., Chang, K.J., The Dietary Intakes and Internet Searches Reagarding by Disease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a Nutrition Education Web Class, Korea J. Community Nutrition, 7(5):696-704, 2002.
8. 김초일. 영양관련 보도의 현실. 한국영양학회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pp.14-16, 1998.
9. 김희섭. 텔레비전 식품광고에 관한 고찰.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1(4):507-515, 1996.
10. Kotz, K., Story M : Food advertisements during children's Saturday morning television programming: Are they consistent with dietary recommendations?, J. Am. Diet. Assoc., 94(11):1296-1300, 1994.
11. 이정원, 이보경. 영양관련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한 텔레비전의 영양과학적 역할의 검토.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4):642-654, 1998.
12. 이정원, 이보경. 식생활 관련 TV프로그램의 전문가 자문에 대한 제작자 태도 출연자 구성의 분석.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2):317-328, 1998.
13. 민영득. 식생활 관련 불건전한 방송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영양사협회 모니터 교육, 1997.
14. 강상현. 국민건강 관련정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모니터링 심포지엄, 1999.
15. 박용주.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토의,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모니터링 심포지엄, 1999.
16. 김현숙.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대한영양사협회식품영양모니터링 심포지엄, 1999.
17. 김기태. 대중매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초록집, 1998.
18. 김기태. 대중매체 모니터 방법론. 대한영양사협회 모니터 교육, 1997.
19. 손숙미. 인쇄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모니터링 심포지엄, 1999.
20. 대한영양사협회 : 언론 모니터 활동 보고서, 1995, 1996, 1997.
21. 손용. 현대방송이론, 나남, p.113, 1992.
22. 서종빈. 환경 관련 프로그램의 실태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공중파TV, 라디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23. 윤영관. 한국 텔레비전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4. 손승혜. 국내 방송뉴스 대안 제시없고 사건결과만 보도, 방송진흥원 저널리즘 토론회, 1999.
25. 임양순, 김경희. 강원도 지역 여자고등학생들의 식생활 행동과 체중조절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1):29-45, 1994.
26. Park, E.J., Moon, H.K., Lee, S.S., Park, W.H., A Study on the Food Habit and Nutritional Statu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Korean J. Nutr., 34(2):188-197, 2001.